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의 봉사

주간
총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회 선교국
충원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순진

단기선교 몽골팀

복음의 불모지 기독교인 7천명의 땅을 찾아서

열 넷의 영적 군사들 28일 출발

지난 수개월간 기도와 구체적인 훈련으로 준비해온 단기선교 몽골팀(단장 임무친 장로, 지도 김필수 목사, 대원 한용배 총무 71명)이 드디어 28일 출발한다. 단기선교 여섯번째 팀이다. 몽골팀은 기존의 선교적 틀에 매이지 않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민음선교'를 제시한 교회의 단기선교 정책을 따라 '직접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다각도로 준비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연결된 한 몽골형제(숙박)를 통해 매주 토요일마다 세시간씩 기본적인 인사말과 더불어 전도를 위한 몽골어를 습득해 왔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다와)의 도움으로 현지에서의 효과적인 직접 전도 사역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몽골팀은 28일 출발하여 몽골의 수도인 울람바타르에 도착한 후 곧바로 버스를 이용하여 하랄호를으로 갈 예정이다. 그곳에서는 몽골 유목민들의 전형적인 주택인 '겔'(텐트)을 한 채 빌려서 주민들을 초대하여 복음을 제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종교비상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일정한 장소를 빌려 초대에 응한 사람에게 복

음을 전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이다. 몽골팀은 초대에 응한 주민들에게 전사할 큰 수건과 화장지를 마련하였는데, 이 물건들에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등 복음을 제시하는 구절들이 가득 인쇄되어 있다. 이 초정전도집회는 2박 3일에 걸쳐 계속될 예정이다. 그리고 하랄호를 사역이 마쳐지면 다시 울람바타르로 돌아가 다와 형제의 집에 몽골인들을 초청할 계획이다. 이때 초청할 주 대상들은 가족의 가장이나 자녀를 한국에 근로자로 보낸 이들 가족들이다. 몽골팀은 이를 위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일터를 방문하여 일하는 장면과 더불어 그들이 전하는 인사말 등을 비디오에 담았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초대하여 함께 예배드리라는 모습도 촬영했다. 몽골팀은 이들의 모습을 몽골의 남을 가족들에게 보여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진리를 힘있게 증거할 계획이다.

충현의 성도들은 이들이 기도하며 성실하게 준비한 여러 창의적인 전도전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몽골의 각 지역에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실 것을 믿으면서 중보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겠다.

계속되는 여름 수련회

"저들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들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주 27일에 시작하는 중등2부와 3부의 수련회가 끝나면 이제 고등부와 청년2부 그리고 예바다부 성인반의 수련회만을 남겨놓게 된다. 중등2부는 2박 3일간 '유일하신 예수님'을 주제로 예수님의 유일성과 그의 사랑을 배우고 특히 장애인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그리고 중등3부는 '찬양하라 네 영혼아'를 주제로 3박 4일에 걸쳐 충현기도원에서 찬양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주간에 수련회를 가진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중등1부, 예바다

부, 그리고 실로암찬양대는 은혜롭게 모든 순서들을 마치고서 수련회 평가회 및 교사수련회 등을 통해 수련회를 돌아보고 더욱 내실있는 하반기 교육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전통적으로 성경학교나 수련회는 교회교육의 영적 부흥을 극대화시키는 아름다운 기회로 사용되기도 한 반면, 짧은 기간동안 집약된 특별한 활동들로 인해 후유증과 일상생활에 대한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따라서 교회와 교사 및 학부모들은 수련회 이후의 신앙생활에도 더욱 마음을 기울여 수련회의 열매들이 생활 속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다. (사진 / 소년부 성경학교)

공원조성공사
입찰 공고

교회는 아래와 같이 충현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성사업에 종사하시는 관공되는 성도님께서는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 공사명: 충현어린이공원 조성공사
- 위치: 역삼동 666-2번지, 역삼동 663-19, 20번지
- 조성면적: 2,732.7㎡(828.09평)
- 발주처: 충현교회유지재단
- 공사방법: 도급공사

2. 현장 설명 및 마감

- 일시: 1998. 7. 29(수) 13:00
- 장소: 역삼동 충현교회(사무국) 전하: 557-0001
- 지참물: 공사지명통
- 입찰마감: 1998. 7. 31(금) 17:00 충현교회(사무국)

3. 심사 및 발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후 개별 통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2회 여름수련회
자원봉사자 모집 중

선교위원회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제2회 외국인 근로자 여름수련회를 실시한다. 그동안 선교위원회 산하 외국인근로자사역부는 국내에 있는 적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허거한 한국생활로 인해 너무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에 마음을 두고 이들을 위한 섬김의 일을 계속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다수가 동남아시아의 회교권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통한 회교권 지역 선교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말씀과 사랑으로 이들을 섬겨왔다. 그 결과 금번 단기선교팀들 중 스리랑카팀 등은 이렇게 훈련받은 스리랑카 형제들의 큰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한편 금번 수련회의 주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인'이며 강사는 이승수 목사이다. 외국인근로자사역부에서는 금번 수련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사와 프로그램 진행자로, 또한 상담사 및 차량, 찬양 봉사자 등으로 성직 자원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

농어촌전도대
금주에도 13개팀 출발
강원도 정선에서 제주도까지

지난주 중에 활동을 마친 13개 농어촌전도대에 이어 금주에도 13개팀이 연속 출발한다. 고구 4개팀(7, 8, 11, 14코), 대학부 6개팀(4, 5학년, 돌배개, NMC, 익부스, 아돌람), 그리고 청년부1부 2개팀(3, 4팀)과 청년2부 1개팀 등이다. 이들이 방문하는 지역들은 강원도 정선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다. 금주에 출발하는 전도대들도 지난 주에 활동한 팀들과 유사한 사역들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힘쓸 예정이다. 금주의 팀들도 축조전도와 초정전도집회, 농어촌 일손돕기, 이마용 봉사와 의료봉사로 등 농어촌의 주민들과 복음의 온정을 나눌 계획이며, 대학부의 아돌람과 NMC는 각자의 스그룹 성격에 맞추어 장애인수련회와

병원전도 등을 통해 봉사와 전도할 계획이다. 불멸대위가 시작되는 즈음에 마나는 금주의 전도대들을 위해서도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절실하다.

단기선교
스리랑카팀 · 인도팀 출발

각각 22일과 23일에

단기선교 스리랑카팀과 인도팀이 지난 22일과 23일에 각각 출발했다. 스리랑카팀은 지난해 우리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훈련을 받던 중 본국으로 돌아간 현지인 가정들을 방문하여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그 지역 일대에도 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그리고 인도팀은 현지에서 3개팀으로 나뉘어 파티말라, 바라나시, 캘커타, 델리 등지에서 직접 전도를 시도할 계획이다. 두 팀의 귀국일은 각각 7월 30일과 8월 3일이다.



김창인 목사

악한 자의 멸망과 성도의 구원

(이사야 26:5-15)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지 않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의인이 고생하는 기간이 긴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늘 기다리면서
신앙의 등불을 밝히 켜고 바로 살아야 합니다.”

1. 높은 데 거하던 악한 자들의 멸망과 성도의 구원

(1) 높은 데 거하던 악한 자들의 멸망이 어떠합니까

① 높은 데서 낮추십니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솜은 성을 혈이 땅에 엎으시고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5절)

“높은 데 거하는 자”란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교만한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한 자들이 악자를 착취하고 의인들을 핍박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의 코가 땅에 닿도록 내려가게 하십니다.

② 밟아 버리십니다.

“밭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반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라도다”(6절)
교만한 자들을 땅에 낮추신 다음에는 밟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밟아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당하는 자로 하여금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억울함을 당하던 자의 발로 악한 자의 머리를 밟는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은 주의 백성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한 악한 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2) 높은 데 거하던 악한 자들이 멸망할 때에 성도에게는 어떤 구원의 복을 주십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어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침침을 평탄케 ...”(7절)
의인의 앞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와 타협하지 않다가 손해를 당하면서까지 의를 지키는 신자들의 앞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거짓말로 평평하지 않고 땅을 밟을 줄 알면서도 잘못된 그대로 인정하는 정직한 신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닌 자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공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2. 심판받을 길을 가는 악한 자들의 멸망과 성도의 구원

(1) 심판받을 길을 가는 자들의 생활이 어떠합니까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와 위업을 돌아보지 아니하도다”(10절)

첫째로, 교만하여 거역하는 생활을

합니다. ‘여호와와 위업을 돌아보지 아니하도다’. 악한 자는 교만하여 반드시 거역합니다. 부모님도 거역하고 학교의 규칙도 거역하고 나라의 법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도 거역합니다. 악한 자는 교만하므로 틀림없이 반역을 도모하게 됩니다.

둘째로, 게으른 생활을 합니다.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책임을 맡았으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충성을 다하지 않고 다른 자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합니다.

셋째로, 거짓된 생활을 합니다.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이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넷째로, 음란한 생활을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음란한 마음을 먹고 더러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섯째로, 잔인한 생활을 합니다. 악한 자는 남의 사정을 모릅니다. 자기의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의 배고픈 사정을 모릅니다. 이런 잔인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2) 심판을 받을 악한 세상에서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8절)
악한 자들이 심판받게 되는 길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직 여러분은 길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길이란” 세상에 사는 동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성도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무리 괴롭고 억울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총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도다”(8절)

사랑하는 어려움, 천대를 받아 억울하고 핍박을 받게 고생하고 배척되고 가난할 때에, 우리는 원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3. 밤과 같은 때에 성도의 생활과 악한 자의 멸망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9절)

(1) 밤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밤은 괴롭고 고생하는 때를 말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로, 밤은 외로운 때를 말합니다. 셋째로, 밤은 수심이 전부 바뀔 때를 말합니다. 밤에는 어둠이 어딘인지 좌우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습니까? 모든 질서가 뒤바뀌어 밤과 같은 세상입니다.

못된 것은 자기가 해롭고 의인들끼리 누명을 씌우고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밤과 같은 세상입니다. 넷째로, 밤은 악한 자들이 날뛰는 무서운 때를 말합니다.

다섯째로, 모두 자는 때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잠든 때입니다. 잘 믿는다는 사람까지도 신앙의 잠을 잡니다.

(2) 밤과 같은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남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때 나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남들이 믿음의 잠을 잘 때에도 내 영혼은 주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괴로운 밤, 외로운 밤, 좌우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운 밤, 악한 자들이 날뛰는 밤이 오고, 천지가 정진없이 믿음의 잠을 자는 밤이 올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천령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3) 밤과 같은 때에 악인은 어떤 일을 행하다가 멸망을 당합니까

① 은총을 입을수록 불의를 행하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10절)

악한 자들이 사명을 잘하여 돈을 많이 모으면서도 자기 잘 나서 그렇게 잘 줄 알고 사치하고 음란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잊지 않고 된 대로 더 많이 행합니다. 악한 자들은 은혜를 입을수록 고만하여 악자의 사정을 몰라 주고 음란하여 의를 배울 마음이나 행할 마음도 없고 정직한 것만을 거짓말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복을 받으면 바로 살아가 되겠는데 점점 더 못한 것을 하니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들이 못한 것을 하면서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악한 자들은 잘 판다고 의를 배우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한꺼번에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② 주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나타나 보이는데도 모른 척하고 악을 행하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라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11절)

이 말씀은 악한 자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손이 높이 나타나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므로 악을 계속 행하다가 심판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4) 밤과 같은 때에 성도들에게 땅을 확장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시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15절)

‘이 나라’는 ‘의로우 나라’인 영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줄 새 땅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경계를 넓혀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4.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로, 신자는 밤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천령교회의 성도들은 괴로운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로, 복을 받을 때에 감사하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은 복을 받을수록 교만하여 악을 더 많이 행하지만 우리는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생활을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지 않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의인이 고생하는 기간이 긴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늘 기다리면서 신앙의 등불을 밝히 켜고 바로 살아야 합니다. ■



김성관 목사

위험과 신앙

(요나 1:5-6)

“때때로 우리의 삶은 매우 위험한 가운데 놓이고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지만 누구나 다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사랑하는 자만이 그분의 응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생긴 위험

본 장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네웨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요나는 니네웨와 반대 방향인 다스스로 가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사 139:7-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도망을 시도합니다.

바로 이때 위급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에 큰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고, 또 그 결과로 요나가 탄 배는 거의 깨어질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순차적인 위험은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벌어진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결과되는 위험한 일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사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위험 앞에 무력한 인생

엄청난 위험에 함께 직면한 사공과 요나와 선장의 대처하는 행동은 각기 다릅니다. 사공은 몹시 두려워하며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일후 자신들의 신에게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의 물건들을 모두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요나를 찾아 무슨 연고인지 고하라고 간청합니다(8절).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살아남기 원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죽음에 대한 심한 공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온갖 위험 앞에 철저히 무력한 우리의 모습을 상징시킵니다. 위험이 닥치기 전,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막상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순식간에 실체가 드러납니다. 엄청난 자연재해(허리케인, 지진, 화산 폭발, 번개, 해일 등)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험한 자연재해들은 인생의 덧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만듭니다. 파도가 인간을 덮칠 때나 폭풍이 인간을 모든 것을 날려버릴 때, 지진이 인간을 삼킬 때

나 뜨거운 용암이 인간을 녹일 때, 번개가 인간을 내리 칠 때, 인생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은 그저 하찮은 껍데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위험에서 발견되는 신앙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의 바다가 흉용해지면서 배에 탄 사공과 승객들을 위험하게 되면 비록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일 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인간은 신앙 여부를 떠나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렇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원리적으로는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시며 늘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막상 위험한 일에 처하면 자신감을 잃고 신앙심도 약해집니다.

그때에 그들은 위험에서 건져 주시는 은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극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다만 위험한 상황에 처한 그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선장을 통해 들린 하나님의 음성

배의 선장은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나는 큰 풍랑이 닥친 위기의 순간에 배 아래로 내려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말합니다. “어쨌든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자 마땅하지 않게 하시리라”(6절). 선장이 요나에게 한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과 참으로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고 선장은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선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나는 참으로 피로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려 했는데 선장은 그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부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 그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선장의 모습은 죽은 아내를 찾은 레위인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레위인은 문지방에서 죽은 아내의 시신을 향해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라고 말했습니다(사 19:28). 선장이 요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치 죽은 아내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던 레위인의 행동과 흡사합니다.

요나는 영과 육이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잠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잠에 빠지려는 그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잠의 위험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을 보십시오. 너무나 큰 어려움입니다. 이 어려움을 구제할들을 통해 극복하려는 인간적인 방법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이토록 큰 심장과 공화과 침체가 가득하고 그로 말미암아 아무런 일들이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수면상태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요나 당시의 이방인들은 세 가지의 신, 곧 자신과 가족 그리고 국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이 그들을 지켜 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요나의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선장은 위급한 상황에 이르자 자신을 위험에서 건져 줄 절대자를 찾고 있었습니 다. 그리고 요나의 하나님께서 자

신들을 위급한 곳에서 구해내고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결국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그들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답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사 물이 뿌려진 번갯불을 태우시기도 한 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분의 계획이었습니다.

요나서 전체는 하나님의 구속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도 절대로 그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헌신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되돌아 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완전히 거할 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은 매우 위험한 가운데 놓이고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지만 누구나 다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사랑하는 자만이 그분의 응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기에 모든 대담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일어나 갑시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립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그분이 축복해 주실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 속에서 삼일을 보낸 후에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통하여 다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다스리시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니네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요나와는 달리, 우리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나가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으로 나갑시다! 아멘. ■

수단 선교 보고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서 빨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좋겠어요.”

수단 단기선교팀

집이 늦은 것은 하나님의 뜻

6월 27일 12시 45분, 수단의 카르툼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을 출발한지 30시간이 훨씬 지난 후였다. 한국에서 등산까지 하며 체력 단련을 했지만 우리 일행이 속속세 도착했을 때에는 모두 녹초가 되어 있었다. 게다가 서울에서 부친 집이 하나도 도착하지 않았다. 21개나 되는 가방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다. 그러나 집이 늦게 도착한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됐다.

도착 당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에는 카르툼 외곽으로 현지마을을 방문을 나갔다. 사방이 모두 댐 뚫린듯한 어수룩한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이 집 저 집을 방문했다. 방문하는 집마다 병자가 있었다. 그들에게는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입을 옷도 없었다. 항상 먼지가 날리며 사람들은 굶주림이 아이들의 얼굴에 달라 붙었다. 복음을 모르는 대부분의 모슬렘들은 그냥 '인샬라'(모든 것이 알라의 뜻)라며 체념하고 지낼 뿐이었다. 출생신교도 사망신교도 없는 나라. 사람이 죽으면 마치 쓰레기장 같은 공동묘지에 그냥 파묻으면 되는 나라. 암상하게 마른 가족들이 쓰레기더미를 헤치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나라. 그곳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진정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했던 헌 옷들(교회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모아준 것들이다)이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들은 오직 "예수야 비일방"(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이라는 말을 읊조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나일의 흙탕물을 마시며

도착 사일째 되는 날 팀을 나누어 두 곳으로 흩어졌다. 한 팀은 차로 7시간 달리 신자라는 카르툼 남쪽 지방으로 갔고, 다른 팀은 버스로 11시간 걸려 메라위라는 북쪽 지방으로 갔다. 특히 메라위로 가는 길은 사하라 사막으로 도로가 따로 없었다. 트럭을 개조한 버스 안에 50명 이상이 움푹달라 붙어 앉고, 버스 지붕 위에는 사람과 짐이 뒤엉킨 채로 모래 바람을 그냥 뒤집어 쓰러들었다. 사막을 달린 지 한 두 시간만에



△ 수단 신지지역에서의 전도 사역 중, 한 어린이 병들어 죽어가는 자의 아이를 지붕 위로 던져버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됐다. 그 지방 미신에 따라 그렇게 하면 죽어가던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라 믿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선교팀이 그 아이를 받아 물을 먹이고 기도했다니 아이가 입으로 항문으로 불순물을 쏟아냈다. 그리고 살았다.

모든 대원들은 먼지로 뒤범벅이 됐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지만 입에서는 모래가 섞였다. 형제들도 건디기 힘들었는데 자매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메라위에 도착했을 때 너무 배가 고파졌던 준비해간 빵도 먹지 못할 정도로 모두 지쳐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퍼다가 커다란 통에 담아 놓고 그 물을 식수점sett는 물로 사용했다. 낮에는 쓴 설탕이 거러지던 그 흙탕물을 저녁에는 우리 대원들 모두가 마시기까지 했다. 그곳에서 사역하던 4일 동안 나일강 물을 정말 실컷 마셨다. 그 흙탕물을 그렇게 마셨지만 대원들 중 그 누구도 배탈이 나지 않았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다.

메라위 난민촌에서

메라위에는 난민촌이 많았다. 수단 모슬렘 정부의 핍박을 피해서 또는 남부지역의 전쟁을 피해서 집단으로 이주,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상상 이상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 대원들은 짝을 지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복음으로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이미 복음을 들었던 자들과는 결신의 시간을 가졌다. 준비했던 아람어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때 그

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왔지만, 정작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동이 훨씬 크게 느껴졌다.

구호품 대신 복음을

수단 도착 일주일만에 집을 찾을 수 있었다. 현지인들에게 나누어 줄 구호품(현옷)도 도착했지만, 남은 사역 일정 동안 그 물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동안의 사역에서 우리가 구제하려 온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해 온 것임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집이 도착하지 않았을 때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는 그들을 볼 때마다 준비해간 옷들이 아쉬웠지만 전해 줄 수 없었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열심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자." 지도 목사



△ 수단은 온통 범죄투성이다. 김희수 목사와 일행이 어느 마을을 방문해 현지자를 위해 인수를 하고 있다.

들이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이던지, 사실 수단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 모슬렘 법에 의해 통치되는 수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가족 또는 친척들에게서 축출당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또 직장이 있는 자라면 그 직장에서 쫓겨나기 십상이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겨운 그들에게 복음을 수용하고도 권유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포기하고도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수단 모슬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메라위 사역이었다.

남의 말대로 우리에게는 정말 복음밖에 없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리고 그 반은은 정말 놀라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수십명씩 나오기도 했으며,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났다. 어느 마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 길외 정자로 모였으며, 복음을 전하는 대원들의 가슴은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히 채워졌다.

모든 물품은 현지 전도 사역에 활용되도록 김영대 선교사님께 맡겨드리고 수단을 떠났다. 귀국하면서 모든 대원들이 고백한 것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리라는 것이었다.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하심으로 수단 단기선교가 무사히 끝났다. 앞장서서 말씀하며 그들의 발을 씻기위한 단장 이창호 장로님, 지시하기보다 솔선수범하셨던 지도 김희수 목사님, 이머니처럼 젊은이들을 챙겨 주시던 김계해 집사님, 그리고 마음 같지 않고 끝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리던 대원들, 그곳에서 만난 귀한 일꾼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세주 예수를 영접하기로 결심한 현지 주민들, 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또한 수단의 복음화를 위해 더욱 더 기도하며 후원할 것을 굳게 다짐해본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미 예수를 영접한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그녀를 방문한 우리 일행에게 그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아무 소망이 없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어서 빨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좋겠어요." 사는 것이 얼마나 버거웠으면 그토록 간절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일까. 그 아주머니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집을 방문한 우리 일행은 절로 숙연해졌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용



△ 수단은 지붕없는 교회다. 이 교회는 그래도 지붕이 있는 양호한 교회이다. 어른 아이 구분없이 예배당에 모여 복음을 귀를 기울이고 있다.

단기선교. 단기행사

7월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국내·외로 단기 사역을 갑니다. 사역을 떠나는 청년들의 생각을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죽도

김 지 은 (70동기)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도록 지었는지...!
제주도 외딴 섬을 한번도 가본 적 없는 서울 촌놈(?)인 난 기대되는 마음으로 서울을 떠나 3박 4일의 길고도 짧은 단기 사역을 하였다. 섬 곳곳에 정돈된 캄캄한 마을 사람들의 부지런함을 느낄 수 있었다. 호의적으로 대하시며, 자상함으로 일관하셨지만 마지막을 장식하던 그날, 우리 죽도팀은 마을 잔치를 위해 마임, 율동, 음식 등을 준비해 어른들을 모시고 주님을 알리고자 하였다. 매일 축회전도를 통해 마음이 열렸다고 느꼈으나 마을 모퉁이마다 포스터를 붙이고 화살표를 만들어 붙였던 그날, 교회로 돌아오는 길가에 갈기갈기 찢어진 우리의 포스터는 마을 속으로 받아들이자 못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엿보게 했다.

시간은 점점 가까워졌다. 우리는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잔치를 초대하기 위해 마을회관으로 갔다. 아! 조그마한 섬마을에 시의원이 오신다. 모두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교회 잔치는 안중에도 없는 눈치였다. 얼마 지난 뒤 멋진(?) 시의원이 오셨고 마을 발전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한 후 유유히 사라졌다. 이젠 모두 교회로 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장님께서 회관에 모여 회의를 하라고 하셨다. 그때 목사님 특유의 애교(?)로 어른들을 모시고 교회에 가서 회의를 하자 하셨다. 나도 용기를 내어 한 할머니께 가서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너무 귀찮게 한다 하시며 집을 향해 가버리었다. 2시간 뒤에 이어진 마을 잔치는 잘 진행되었고 30여명의 마을 사람들을 모실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삶 속에 자리잡은 유교사상을 한꺼번에 뿔아 버릴 수는 없지만 겨자씨의 비유처럼 뿌리고 뿌리면 주님께서는 거름 수 있도록 하시리라는 기대가 생겼다. 마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열심을 보냈고 우리는 돌아왔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로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올해도 죽도를 가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죽도 사랑 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한다.



중국! 그곳은 예수 청년의 밥이다

추 진 회 (72동기)

하나님의 손이 지금 중국을 깨우고 계심을 느꼈다.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키는 사단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성도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깨고 개방 후 수많은 지하 성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온 몸이 전율을 느끼게 한 바 있었다.

중국 장기선교를 위해 단기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한 전도사님을 대장으로 신대원 선배님들과 김정연 집사님, 학교 선배, 방미영 언니와 함께 10명의 대원이 17일간의 중국 단기 사역을 다녀왔다. 34명씩 조를 편성하여 조선족이 모이는 처소교회에 23일간 머무르면서 성경공부와 찬양, 율동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사역을 하였다. 내가 처음 방문한 곳은 하얼빈에서 8시간 더 들어가야 있고, 이방민 선교사가 처음 들어가는 곳이라는 통하의 처소교회. 그곳에서 교회는 세워졌지만 영적 지도자가 없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애타시며 눈을 흘리시는 여성도님을 만났다. 지금은 8리를 달려와 예배를 인도하시는 탁 집사님이 계시는 하지만 신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듯했다. 말씀에 굶주려 있는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아왔다.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순간마다 아멘의 소리가 불었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하는 모습,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습은 내게 큰 감동을 주었다. 말씀 한 말씀한 말씀을 모두 가슴에 새기리라도 하려는 듯 주목하는 눈빛은 너무나 강렬하였고 성경에서 함께 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혼은 지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곳은 여러 교파에서 공약하는 곳이었기에 말씀을 접하는 기회는 많았다. 하지만 종교법 개정(처소교회 불인정)으로 압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중에도 모이기를 힘쓰는 이들의 뜨거운 믿음을 보았고, 지난 겨울 사역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영적 지도자가 없어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용정교회에도 방문하였다. 한 달에 한번씩만 와서 지도해 줄 수만 있어도 유지될 교회가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다. 마지막으로 북경에서는 뜻밖의 은혜로 북경대대 인민대, 민족대를 방문하여 유학생들을 만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중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하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동안에 너무나 안전한 신앙생활과 훈련을 받았던 것을 회개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훈련반야야 할 때임을 절감했다. 한국에 돌아가서는 어느 곳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성장상을 도울 수 있도록 개인의 경건의 훈련과 필요에 맞는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교양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로 부르시든지 즉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할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받겠다고 다짐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나라, 가난한 심령이 있는 나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나라, 바로 중국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심령이 온 세상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몽골을 품고 이제 떠납니다

노 경 재 (72동기)

한국에 대한 몽골인들의 감정은 친근하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무지개 나라(송골고스)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표시하고 있다. 몽골 선교에 있어서 우리의 장점은 몽골인의 친근감 이외에도 문법적인 유사성으로 인하여 몽골어를 쉽게 터득할 수 있고 오랜 역사적인 교류 관계로 인해 문화적인 괴리감이 적어 몽골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를 스스로가 지켜야 할 수칙은 몽골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평안과 안일을 위해 한인들을 만나지 않고 공동체를 존중하며 개인주의를 금하는 것이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다. 준비해 왔던 것들을 이제는 배낭에 넣어 넣고 신발끈을 바짝 조일 시간이다. 감사한 것은 그 준비하던 시간 동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지속적으로 키워져왔으며 우리 자신들이 조금씩 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는 모습들이 자주 비쳐졌으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기도로 간구하며 찬양을 돌려드리고 말씀에 감동해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두려워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멀리고 긴장하고 두렵고 피곤하고... 하지만 이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지체들에 대한 사랑을 품고 주님께서 이번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 그 뜻을 나타내실지를 기대해본다.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든 젊은 경찰들을 꿈꾸며

경찰청 607 전광대 지도 특별 집회

김윤섭(집사, 경찰전도교회, 충무로교회)

후 팀지근한 젖빛 구름이 양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지난 7월 7일(화) 오후 5시 30분 경찰전도교회 27명(외장 이갑재 장로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대상으로 앞장 세우고 경찰청을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곧장 14층 경찰청교회에 올라가 7시 30분 607 전광대 지도 특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조철수 목사님은 설교 말씀을 통해 세상에는 거미줄같이 많은 길들이 있지만 잠시 잠깐 다니는 죽음의 길뿐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길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임창식 집사님의 찬양 인도를 따라 경찰전도교회 여성 찬양단이 부른 "예수 믿으세요"는 너무나 훌륭하고 은혜스러웠습니다. 그 찬양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외경들을 위해 기도과 물결로 후원하시는 권사님과 회원 176명의 노고와 하늘 나라 상급으로 보화가 쌓일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전·외경 105명 중 공개 단원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전·외경 25명은 하늘 생명권에 등록하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속에서는

간절한 당부의 말씀이 솟아 올랐습니다.

"전·외경 여러분 현재 세상은 어둡고 깊은 밤입니다. 찬란한 태양을 잉태하려면 밤은 고통의 해산을 겪고 영광의 새 아침이 되면 이들은 일곱 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보혈로 물들여진 주홍빛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 마지막 때 전·외경 개개인 믿음의 열매에 충성을 다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와도 싸워 승리의 믿음을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스승으로 부패하지 않는 밝은 21세기를 건설하고 범죄가 없는 사회와 생명을 보호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고 높고 높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사 기도가 계속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경찰전도회는 현재 회원 176명이 가입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으며 98년 연말까지 회원 300명을 목표로 기도중에 있습니다. 총현의 성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를 위해 치환을 담당하는 15만 경찰, 전경, 외경의 복음화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찰전도회 연락처: 552-8200(교한 325)

전국 찬양대 지도자 강습 및 수련회를 준비하며

강 일 구(집사, 찬양감독)

멀 리 제주에서, 강원도 철원에서, 부산, 순천 등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까이는 우리 교회 주변의 교회로부터 전화를 받아 주운한 숫자대로 신청서와 추천서 용지를 고이 집어 봉투에 넣고는 그분들이 원하는 때에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쁜 걸음으로,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체국을 향한다.

또 한편으로는 정성껏 쓴 신청서들을 접수하면서 진한 감동을 느끼며 절로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온다. 어떤 분은 신청서까지도 일일이 손으로 그러서 보내기까지 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보낸 것들이 각각 한장씩 있었는데 이 교회에는 두 분(지휘자, 반주자)을 보내시려고 반주자 선생님은 신청서와 추천서 양식을 그대로 베껴 적어서 보내 주신 것이다. 전 교인 70명, 찬양대원 15명이 추천서에 적힌 내용이다.

과연 나는 이런 분들을 교육할 자격이 있는가? 오히려 내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더 많은 것다는 생각이 든다. 순수한, 주님을 향한 열정, 그래서 감사하고자 하는 고상하고, 그리고 헌신적인 마음, 창피함에 고개가 숙여진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어졌던 좋은 교육 기회들, 경험의 순간들을 통해서 그나마 바람에 날리는 작은 열매만큼밖에 이분들보다 더 아는 것이 없지만 이번 삼일간의 교육을 통해서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찬양, 예배 음악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드러질 수 있다면 비록 너무나 부족한 선생이라도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일이 아닐까. "기도하자, 겸손히 섬기자, 가르치는 자제가 아니라 마음 속의 뜨거운 열로 가진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드러자, 주님 기뻐하시도록." 이렇게 되뇌이면서 한 장 한 장 접수번호로 정해진 신청서를 넘겨본다. 전교인이 130여명인데 강습회에 8명이나 보내 주신 감제의 어느 교회, 찬양대 반주를 50년 동안 하신 권사님을 성악파트로, 두 분의 전도사님과 지휘자, 반주자를 지휘파트와 반주파트로 각각 등록시킨 순천의 어느 교회, 전교회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하셨던 목사님들의 요청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찬양감독으로 부임한 후 찬양위원장 손동은 장로님과 나는 이야기를 생각한다. "이제 우리들이 오랫동안 위해왔던 대로 찬양감독이 부임하게 되었으니 그동안 할 것도 할 수 없었던 일, 예를 들면 지방 교회의 음악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동원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도자하고 같은 것을 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 '제1회 전국 찬양대 지도자 강습 및 수련회'를 찬양위원회에서 개최하게 되었고 부족한 사람은 이 일의 실행을 많이 담당하게 되었다. 처음 있는 일이라 실수나 불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위한 준비위원회와 지도부에서 모든 준비위원들은 한 마음으로 이 겸손한 섬기는 자세로 임하고, 열심히 땀과 함께 준비해서 참가자들에게 다 드러내고 드림게 되도록 하겠다.

지금쯤 정말 어려운 때임이 틀림없다. 그러하더라도 당위가 이 일을 기쁨으로 허락해 주셨다. 이제 남은 일은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는 것뿐. "주님 예비된 자들을 많이 보내 주시라. 그리고 자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맥추감사절 감사 찬양을 마치고

이 형 주(호산나찬양대원)

998년 7월 5일 주일 새벽 맥추감사절 찬양예배를 우리 호산나찬양대원들이 준비했다. 3월부터 7월초까지 4개월 동안 일주일에 4.5시간 정도 최선을 다해 연습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우선 감사를 드린다. 각자 대원들의 가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찬양 연습을 일순위로 생각하고 연습하는 모습들을 하나님도 기뻐하셨으리라 믿는다.

우리 호산나를 유일하게 헌성이 아닌 여성 찬양 대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부르기만 하면 한 치도 사양 안하고 달려가기 때문에 119찬양대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국군장병들이 근무하는 최전방, 교도소, 장례식 등 어디든지 어떠한 장소든 "이니오"가 있다. 연령적으로는 머느리부터 시어머니까지 폭이 꽤 넓지만 한 마음으로 구성된 대원들이 열심히 봉사하면서 감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맥추감사절 찬양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자기들의 부족을 느끼며 깨달은 계기가 되어 사명 주신 주님의 신임을 받게 되는 그 날까지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양선자 대장, 이승준 지휘자, 김진영 반주자, 이명자 총무, 각 파트장, 임원진들 130여명의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많은 수고와 있었지만 이것이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한 일이었기에 서로 인내하면서 이번 찬양예배를 성황리에 치른 것 같아 감사했다. 얼마나 잘 불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은혜롭게 불렀느냐가 찬양대원들이 가져야 할 본분인 것 같다.

우리는 이번에는 많은 시간들을 연습했다. 이를 통해 나는 주님 위해 일하고 그 시간에 주님은 대신 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얼마 전 있었던 수련회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 "기도원 공기가 달라"라고.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기도에는 맛이 달라지고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접하게 된다. 멀리만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어느 순간 내 곁에서 접하게 되었을 때 정말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씀이 내 것이구나 느껴진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응답주시는 감사, 기뻐하심도 감사, 그러나 거절하신 뒤엔 반드시 더 좋은 것이 주시기를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그 뒤에 알게 된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님이 주신 달란트와 능력이 있다. 그러나 크게 받고도 쓰지 않아 누스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작은 것 받고도 감사하면서 실행할 때 주님은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이 쓰임 받도록 역사하신다. 모든 영광을 주께!!

지체들 소식

영아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감사해요

첫째날 서로서로 사랑하고 - 예수님이 함께 하시므로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교동편이 혼잡한데도 불평없이 시작한 첫날 136명의 아이들이 함께 했다.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감사하며 우리의 가까운 마을 더러웠던 마을이 예수님 때문에 하얀 마을 깨끗한 마을이 되었다. 성경학교 전도사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다. 성경학교마다 먹는 떡볶이는 육의 음식으로 충분했다. 특강 시간에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다는 디모데의 어머니 유나게의 말씀을 주시며 자녀에게 믿음의 씨, 사랑의 씨, 말씀의 씨를 심어 주라고 이두란 전도사님께서 충고하셨다.

둘째날, 믿는 아이 누구나 사랑하조 -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와는 달리 성경학교 진행하기에 좋은 날씨를 만났다. 첫째날보다 많은 143명이 함께 했다. 이날 전도사님은 진화 하나님의 사랑한 첫날 사랑아임을 말씀하시면서 팔과 허반한 사랑한 아이를 가르쳐 주셨다. 놀이시간으로 아기의 사랑을 나누고 엄마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다. 특강시간으로 아기들의 손과 발을 물감에 묻혀 한지에 찍는 작업을 했다. 하나님께 주신 손으로 만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며 아기들 앨범에 보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15명의 새친구들이 우리의 함께 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팔로 쉼 수가 없었다. 정말정말 감사했다. (송혜경 통신)

초등부

나눔의 사랑 받은 성경학교

7월 16, 17일 및 21일 동안 교회에서 '사랑을 나눠 주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시했습니다(사진). 260여명의 어린이가 참석하여 하나님께 우리들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하고 계시며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천로역정', '인형극' 등을 통해서 배우게 하고 '성경 퀴즈'와 '아나님 게임' 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을 참여시켜 특별히 하는 시간이 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양평에서 더 들이간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하나님께 명령으로 달려가는 교회라는 '명령교회'에서 전도사님과 어린이 네 명이 참석하여 초등부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7일 저녁 금요집회 시간에는 초등부 15살 미만 어린이들이 특별 찬양 순서를 맡아서 어린이 10여명과 함께 교사 50여명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성경학교 기간에 좋은 날씨와 많은 생명들을 보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미숙 통신)



중등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홀리마는 내 조카 그룹에도, 어디서 오든지 몰라도 우리 결혼 스 처가는 내 조카 바람결에도 주님의 손길에 담겨 있는데 저희들이 무디에서

주님을 뵈는겁니다.' 소년처럼 기도하시던 어느 선생님의 기도처럼 일상생활 중에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일단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 나 어디에도 안 계시는 것만 같던 주님을 한번만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달라짐을 알기에 어떤 수련이에도 가능한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여 유일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 신과 돈을 투자하며 일련의 활동들을 해야 하는지를 중등부 친구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시에는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등부에서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 훈련교회를 이끌아가고 장자는 이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성애 통신)

중등부

7월 27일(월) 오전 9시

우리는 중원기도원으로 출발합니다. '찬양의 방법, 능력'을 깨닫고 찬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목적이 중등부에는 예수님과 함께 이 대운 여름을 보낼 것입니다. 입술만이 아닌 영으로 드리는 찬양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모님을 향해, 친구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되새깁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송미정 통신)

고등부

산상기도회

이번 고등부 수련회에는 기도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산상기도회입니다. 주님과 좀더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자고 함께 어울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평소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고등

부 회원들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최운화 통신)

1교구

우리의 도움 되신 여호와 찬양

루디아1교회에는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매일 셋째주 목요일이면 이. 미용전도활동들을 돕는 봉사자를 하고 있다. 이 모임에서 이주현 집사님이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다'는 말씀을 했는데 루디아회원들은 이에 만물의 영장인 우리들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를 볼 수 있도록, 땅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우리가 집사님도 주무시도 않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않게 저거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보혈로 말미암아 한 형제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자고 다짐했다. (임통계 통신)

15교구

많은 기쁨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당신 가정에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에 유기를 통하여 우리의 가치관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남고도 일 때마다 은혜로 넘치고 있다. 급고 통이나 고난을 보는 우리들의 눈이 자칫하면 정죄가 될 수도 있기에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마음을 통해 적용하도록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이 고난 당하는 가정에게 위로와 함께 전해져온다. 우리의 높은 자신의 모습보다는 남의 모습을 보는 데 익숙해 있기에 '네'의 허물은 보여도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남을 선입관에 따라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다고 하시며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 두어야 함을 강조하셨다. (한숙정 통신)

탕방 - 기회위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최선의 선택을 위하여



과 균형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때로 자기 부서의 발전만을 생각하여 엉뚱한 주장을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부서는 기회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이는 우리 교회에서 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

이 부서에서 많은 일을 수행할 때 늘 강조되는 것은 신중함이다. 많은 기회의안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많은 영으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들은 매우 엄밀하다. 모여 깊이 기

도하는 한편 안건을 두고 토의하고 분석하는 일을 거르지 않는다.

기회위원회에서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교회에 와서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것을 돌보는 일도 하지만 그것만 교회들에게 바라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술과 담배에 대한 문제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어느 정도 세태와 타협하는 신앙이 관습을 끌고 있는 이때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단호하게 구

분하는 일이 쉽지않은 않다. 그래서 소수 젊은이들의 반발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는 혼잡주의나 다원주의와는 절대 공존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기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교회의 모든 사업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회위원회가 업무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관점은 이렇하다. 먼저 순교자적인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는 점이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도전을 이겨야 하며 아무런 시대와 변해도 보수 신앙을 유지해야 가야 한다는 점이다. 기회위원회는 이러한 순교자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모든 일을 결정한다.

우리 교회의 중추인 기회위원회가 세대에 물들지 않는 단호함을 바탕으로 교회의 모든 일을 기회화 결정할 때 우리는 이를 관철하고 따른다. 그것은 곧 우리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기회위원회를 깊이 신뢰한다.

기회위원회가 충현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간다면 충현은 존박한 세상을 대대로 이끌어 가는 빛과 소망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다. (김/정원희 기자, 사진/이문구 기자)

어떤 조직이라도 구성원 전체가 다 중추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조직의 중심부에 놓여 있는 중추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운명은 결정된다.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옳고 그 옳지 못해, 구성원들은 그들을 신뢰하며 그들이 내린 결정에 지지를 보낸다. 그 조직이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는 신앙 단체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우리 교회에는 상징되는 교회의 대사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결사할 것 것과 취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일을 하는 기회위원회(위원장 김자생 장로)가 있다. 이 부서의 주된 업무는 교회 성장을 위한 중추적인 계획 연구, 사업실시 방안, 각 부서간의 업무 조정 등이다.

기획이라는 말이 주는 무계획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일의 비효율 만큼이 부서는 심장이야 아주 깊은 분골로 구성되고 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들이

기회위원회는 많은 임무의 막중한 책임을 깨닫고 영적인 차원에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 늘 깨어있으려고 애를 쓴다.

기회위원회는 여러 부서와 기관들에서 올라오는 안건을 교회 전체의 흐름

교 회 소 식

● 알 림

1. 구제헌금 / 오늘 1, II, III, V 부에서 나뉘었다.
2. 놀이촌 및 낙도 하강전도대 / 대부부 4학년(27일~31일, 해성교회), 5학년(27일~31일, 마현교회), 둘째부부(27일~30일, 해성원), 아물람(28일~30일, 춘천복지자, 강남대 빌딩), NMCC(27일~31일, 남부민교회), 이무스(27일~8월 1일, 신성교회)
3. 청년1부 3팀(26일~30일, 구림교회), 4팀(26일~30일, 용호교회)
 - 청년2부 2팀(27일~31일, 동방교회) · 7교구(27일~30일, 커리어교회)
 - 8교구(27일~29일, 천진교회) · 11교구(27일~29일, 북영교회)
 - 14교구(27일~30일, 영랑교회)
3. 해외 단신교집 / 스페인(22일~29일) · 인도(23일~8월 3일)
 - 몽골(28일~8월 4일)
4.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 중등2부(27일~29일, 제2교육관)
 - 중등3부(27일~30일, 춘천기도원)
5. 청년1부 낙도사역에 사용할 물품 수집 / 현지 교회에 기증할 컴퓨터, 의류, 화장품, 장난감을 모으자기 청년1부 면회회실 (교육관 509호)에서 수집.

● 모 임

1. 장로 화요새벽기도회 / 28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안수집회 및 화요새벽기도회 / 27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3. 고구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신교관 301호
4. 불사위원회 모임 / 오늘 15:30, 사무국 회의실
5. 재장위원회 모임 / 오늘 15:30, 사무국
6. 건축위원회 모임 / 오늘 15:00, 사무국
7. 주일오후기도회 / 매주일 15:00-16:30, 사랑방 예배실
8. 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30일(목) 새벽기도 후, 설업인전도회실
9. 권사회 제4차 월례회 / 29일(수) 1부 예배 후, 사랑방

● 나 너 내 도 회

1. 바 을 3 / 오늘 구교모임 후, 교육관 304호
2. 바 을 7 / 오늘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소

3. 베드로10 / 오늘 구교모임 후, 교육관 411호
4. 루디아 8 / 오늘 15:00, 교육관 301호

● 별 세

1. 여론선 성도(산문원 집사 남원, 제9교구 면목7구역) / 21일 별세, 23일 장례
2. 김창복 성도(김재원, 김세희 성도 부친, 제2교구 청담2구역) / 21일 별세, 24일 장례

● 주 소 및 전 회 보 경

1. 이종수 장로, 윤정식 권사, 이희교 집사, 김연숙 집사 / 송과구 오공동 164 우정A, 5-603, 전화: 449-0979
2. 박성현 권사 / 노원구 상계동 4동A, 104-1X02, 전화: 933-1780
3. 김연태 집사, 박현숙 집사 / 전화: 0346-595-1895
4. 박삼희 성도 / 전화: 563-5774

98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 8월 16일 실시

8월 2, 9일에 학습, 세례를 위한 교육 및 문답
유아세례식은 8월 16일 오후 3시, 갈릴릴교회에서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가증자, 인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8월 2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교육관	세례란?	교육관		
	2교시 16:00-16:50	(김진식 목사)	314호	(김정환 목사)	307호		
8월 9일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교육관	교회란?	교육관		
	2교시 16:00-16:50	(정영민 목사)	314호	(한영준 목사)	307호		
8월 16일 (주일)	1교시 15:00-15:50	구원론	교육관	구원론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2교시 16:00-16:50	(이종수 목사)	307호	(이종수 목사)	307호	(인희숙 목사)	310호
8월 16일 (주일)	2교시	문답	교육관	문답	교육관		
	3교시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찬양대	성인 학습 · 세례식	(지비 찬양대, 분당)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릴교회)			

● 8월 주일 및 수요일에 기도 담당

월	일	I	II	III	IV	V	찬양 예배 (전주집사)	수요 예배 (문사)
8	2	임무희	이승철	전종원	최병원	김주형	문병대	박영민
	9	임기재	이정호	김진숙	이강재	유인근	방소세	박소숙
	16	정정주	한승준	김종진	김영수	이승진	박유식	박정순
	23	정홍식	손동운	김은호	윤병식	마성만	이창환	박정순
	30	강순용	김경철	김방진	우기전	하대선	박덕양	김은이
								김진아

세 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인도자
1228	김학박	1	청년2부	남궁금수(1)	1238	안병복	9	박우식	유기원(1)	1248	김용진	19	에바다부	
1229	정미혜	2	루디아		1239	장덕영	13	소망부		1249	전은주	19	청년1부	목익수(19)
1230	김다현	2	루디아		1240	이경호	19	청년1부	방승기(17)	1250	박삼규	19	대학부	
1231	임우현	6	청년1부		1241	소영	19	청년1부	이승재(19)	1251	박명규	19	중등부	
1232	박용순	6	청년2부	이범무(6)	1242	박현석	19	청년1부		1252	최효운	19	청년1부	이동욱(16)
1233	박성조	8	베드로	박인진(13)	1243	조경진	19	대학부		1253	김혜경	19	청년1부	김인식(1)
1234	이태복	9	루디아		1244	김장지	19	대학부		1254	윤영진	19	대학부	염광호(15)
1235	안택진	9	대학부		1245	윤세인	19	대학부	안중수(19)	1255	이은경	19	에바다부	
1236	안택희	9	중등부		1246	최진석	19	대학부						
1237	이희진	19	고등부		1247	윤미라	19	대학부						

※춘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마음

가슴으로 읽는 말씀

한 속 경(잠사, 15교구)

‘어’는 날 두들긴 편지를 받아 보니 나의 사랑하다 병을 얻어 마지막으로 단지(斷斷)를 하여 자신의 피가 다 마르도록 피로 쓴 사랑의 고백이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의 편지를 받은 사람은 평생 그 누구와도 결혼 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랑을 고백한 피로 쓴 사랑의 고백서이다. 어찌 눈물없이 감동 없이 대할 수 있겠는가?

이 메시지는 어느 존경하는 목사님의 20년 전 어느 주일 설교 메시지에서 일부분이다.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면 가슴 뭉클해지는 감정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마음으로 전해 주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뛰어난 문학적 어휘로 표현하시던 그대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내 기억 속에 살아 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진지한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신 귀한 분이셨다.

진심을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진심이 담긴 글을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말은 사람이 대강 훑어보고 그냥 덮어버리고 무시했을 때 우리는 무안하고 서럽다. 그러나 그때 내 마음에 잔잔한 고백이 흐른다. “주님, 제가를 말씀에 저를 더 깊이 생각없이 대강 보아 버리고 관심없이 할 때 주님이 서운하셨겠지요. 주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나의 인격에서 알고 나의 삶에서 절절히 깨닫게 하소서.”

영양(비디오) 직원 모집

춘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음영실에서 근무할 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1. 자격
 - 세례를 받은 26세 미만의 남자
2. 근무직 · 영성직 1명
 - 전자 · 전기 계통의 이수자
 - 촬영과 편집의 경험자
 - PC사용 가능자
 -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제출서류
 - ① 자필이력서(사진포함)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자기소개서
 - ※ 기타 서류는 채용 후 제출
4. 서류제출처 및 문의
 - 춘천교회 사무국
 - 주소: 서촌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전화: 552-8200(교한 402번)

금주의기도 제목

- ① 장장인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에게 감동할 수 있는 지혜와 관용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 ② 장로원전도대와 단신전도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진 일을 아물람에 이루어 그 사역을 붙들며 주사리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춘천의 기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머쥐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는 기성이 되게 하소서.
- ③ 각 예배소회를 맡은 모든 일꾼들이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여 성령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 ④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하게 하소서.
- ⑤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 ⑥ 교회학과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잘 준비하여 각 부서가 은혜를 하시며 교사들에게 열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더욱 열심히 사역하게 하소서.
- ⑦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힘입고 고공스트러와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게 할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복이 많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간직하게 하셔서 치료하여 주소서.
- ⑧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및 개종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성관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종석 김희수 김재현 박정환 김동석 김현민 김병준 이종철 이종수 장갑진 장현민 김도환 조철환 김성환 차병환 김태환 김민익 권현화 사병진 이영환 장병석
- 원로독서사 윤영대 박영호 노봉진
- 선교사 이준고 안석일 김영태
- 김도사 이준고 안석일 김영태
- 원로전도사 이두란
- 어전도사 최순복 장영희 현정남 정복인 장영자 임태두 김장자 배옥인 최희혜 손미희 송향자 김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현숙 함영준 박광화 박희자 김경숙 김태수 박영환
- 교역전도사 박정진
- 교육전도사 박인기 열현일 한승일 이종환 김영기 송원식 김장홍 조재민 최진우 허유근
- 선교전도사 정은의 박대영
- 선교전도사 유병세 김현선 이기성 김현영 고은빈

8월 2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2부 · 3부예배

- 바이올린 윤재형(임마누엘오케스트라)
- 〈찬양곡목〉
- 내 나를 위하여(찬 185장)
 - 주 하나님 독재자 예수
 - 나의 믿음 약한 때(찬 423장)
 - 내 주님 임도시 그 웃음(찬 87장)
 - 나의 도읍 반교(찬 349장)
 -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찬 307장)



◆ 4부 · 5부예배

- 목관앙상블-동원청의 4명 (합창투아오케스트라)
- 〈찬양곡목〉
- 사랑할이여...
 - 축복송과 우리
 - 주는 우리를 지키시네